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조(一朝)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단절하야
 자네 일정(一定)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나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석교(石橋)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래 동덩 치고
 짝큰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四更) 일점(一點)*]에 날 새라고 꼬피요 올거든 오려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는 죽어 황하수(黃河水)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都大船)* 되
 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동덩실 떠서 노자

- 작자 미상, 황계사 -

- *춘수가 만사택하니: 봄물이 사방 연못에 가득하니.
- *하운이 다기봉하니: 여름의 구름이 기이한 봉우리마다 많으니.
- *육관 대사 성진: 성진은 조선 시대 속종 때,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의 주인공임. 육관 대사는 주인공 성진의 스승인데 이 작품에서는 육관 대사와 성진을 같은 인물로 착각하고 있음.
- *팔선녀: 김만중의 「구운몽」에 나오는 여덟 명의 여주인공들로, 주인공 성진의 아내가 됨.
- *사경 일점: 사경은 새벽 1~3시 사이의 시간. '점'은 각 '경(更)'을 5단위로 나눈 시간으로 사경 일점은 새벽 1시 24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각임.
- *도대선: 큰 나룻배

(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지집살이]** 어떻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지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추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지집살이 더 맵더라
동글동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짊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머니같이 어려우라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아머니보다 더 푸르라**
 시아머니 호랑새 요 시아머니 꿩중새요
 동새 하나 할림새 요 시누 하나 뽕족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셀새**

- 작자미상, 지집살이 노래 -

(다)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花容)이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강산불변재봉춘(江山不變再逢春)*이요 임은 일거(一去)에 무소
 식이로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인생일장(人生一場)은 춘몽(春夢)이 되고 세상공명(世上功名) 꿈
 박이로구나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추야공산(秋夜空山)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생
 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나 어이 할까요

일락서산(日落西山)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솟아
온다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아연(啞然)하여 나 어이 할까요
 (중략)

난사(亂事)로 난사로다 난사 중에도 겁난사로구나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여 잘 살아 볼까요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 하여 어이 사드란 말이오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누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아 자귀야 우지를 마라 올 양이면 너 혼자 올 거지

여관한등(旅館寒燈) 잠들은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오

- 작자미상, 수심가 -

32. 윗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의문문의 표현을 통하여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함께 하고픈 화자의 굳은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나): 비관적인 인물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나): 화자의 시상 속의 인물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면서 해학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⑤ (가), (나):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현재 감정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33. 보기를 읽고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화자는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주로 드러내면서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자신보다 임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화자가 **이별 후에 소식조차 단절하였**다는 것은 임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은 임에게 이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 ③ **육관 대사 성진이*가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임을 의심하는 화자의 원망의 감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래 동덩 치는** 화자의 행위는 원망스러운 임을 한편으로 그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다짐은 임에 대한 원망으로 자연스러운 이별의 순간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준다.

34. 윗글의 [사경(四更) 일점(一點)] [시집살이]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시간이다.
- ② 대상에게 심적인 아픔을 안겨주는 시간이다.
- ③ 화자가 느끼는 냉소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심정을 사회 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⑤ 화자가 타인의 의도적 행위에 의해 고통받는 시간이다.

35. (나), (다)의 화자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화자가 자신의 형님에게 그 말 마라 하는 것은 시집 살이 하던 세월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② (나)의 화자가 나뭇잎이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호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다)의 화자가 세월 가는 것 서러워하는 것은 임과 함께 하고 있는 세월이 지나감을 한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다)의 화자가 모란 황국이 다 피었다며 한탄하는 것은 임과 함께하던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다)의 화자가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 하여 어이 사드란 말이오라며 한탄하는 것은 임의 부재로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애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여실 없이 드러낸다. 특히 과거의 문학 작품에 남성임에도 여성 화자의 신분으로서 시를 쓰면서, 임을 기다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고충을 절절하게 털어놓는 시가 많다. 여러 가지 사상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회한의 감정, 속상함 등을 해학적이며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특징이다.

- ① (가)에서 너는 죽어 황하수(黃河水)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都大船)* 된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임을 포용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여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에서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힘들었던 고충을 털어 놓으며 여성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 ③ (나)에서 나 하나만 썩는 새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속상한 감정이 발생한 요인을 앞에 제시하여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다)에서 일락서산(日落西山)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솟아 온다 생각을 하는 화자의 모습은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힘든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 ⑤ (다)에서 아 자귀야 우지를 마라 울 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라고 말하는 부분은 화자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회한의 감정이 다른 사물에게 전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 절절한 시상이 드러난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붙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연해야지. 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顛倒)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이방(異邦)*: 외국, 다른 나라

-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

(나)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②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잔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쿼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어둠이 보일 때까지

⑥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③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 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 주던 방.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춰 주고 되비춰 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

(다)

창에 드는 별이 어느덧 봄이다. 봄은 맑고 고요한 것. 비원의 가을을 걸으며 낙엽을 쥐어 본 것이 작년이란 말인가. 나는 텃마루에서 봄별을 쫓으며 비원의 가을을 연상한다. 가을이 가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④가을 위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온 것이다. 그러기에 지나간 가을은 해가 멀어 갈수록 아득하게 호수처럼 깊어 있고, 오는 봄은 해가 거듭될수록 쌓이고 쌓여 더욱 부풀어 가지 않는가.

나무는 해를 거듭하면 연륜이 하나씩 늘어 간다. 그 연륜을